

경쟁력 있는 젊은 농촌 만든다

익산시, 스마트기술 도입 청년농업인 육성 · 고품질 상품개발 · 귀농 귀촌 인구 유입

익산시가 첨단 농업 기술 보급으로 농촌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내놨다.

익산시는 올해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농촌지도사 업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지도사업 3대 핵심 분야는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통한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이다.

시는 올해 2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농업을 도입,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다.

시는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을 발굴해 이들이 농촌에 머물며 꿈을 펼

칠 수 있도록 월 90~11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 수요가 많은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 중 청년 농업인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는 건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이다. 트랙터와 이앙기 같은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바쁜 시기 작업 효율성을 높여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농촌 인력 육성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시는 올해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해 식량작물 분야 총사업비 28억 3,400만 원을 확보했다. 우리 지역 품

토에 적합한 품종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좋은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을 통한 기존사업장 개선과 농식품 가공 기술 적용 체험 키트 상품화 등을 통해 관련 체험 시설 6개소를 조성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경우 지난해 7개 유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인증 심사를 완료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 창출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동산동 '다래못' 생태복원을 완료하며 녹색정원도시의 면모를 탄탄히 하고 있다.

'다래못 생태습지' 복원 완료

익산시, 동산동 438번지 일원... 생태습지 · 생태체험장 등 조성

익산시가 동산동 '다래못' 생태복원을 완료하며 녹색정원도시의 면모를 탄탄히 하고 있다.

시는 동산동 438번지 일원에 생태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처를 복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래못은 동산동 438번지 일원 1만 3,900㎡ 규모의 저수지로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연못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워 '다래못(달의 못)'으로 불렸다. 하지만 저수지 이용이 줄어들면서 수질과 토양 환경이 악화했다.

이에 익산시는 2022년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으로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 5억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생태복원에 나섰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습지, 연꽃 습지, 생태체험장 · 탐방로 · 조망소 등을 조성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처를 복원하고 공사 추진 전 발견한 100여 마리의 아주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야생동물 서식공간이 제공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자연체험의 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방치된 공간과 훼손 지역에 대한 발굴 및 자연생태계 복원에 힘쓰겠다"며 "적극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휴식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증가 추세

2023년 하반기 고용률 58.8%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 취업자 4800명 증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군산조선소 가동 등 산업단지 활성화 고용지표 개선 전망

군산시는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2023년 5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p 증가한 수치이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4,800명이 증가한 13만 6,000명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률에 대하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52.6%) 이후 최고의 수치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며 "시의 지속적인 맞춤형 일자리정책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군산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도내 7개 시군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15~64세의 고용률은 64%로 전년동기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58.5%)과 비교하면 5.5%p의 큰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4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명(-0.2%)이 감소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3만 8,9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200명(38.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1%로 전년동기 대비 2.4%p 증가하여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별 분야 중 농림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광·제조업의 경우 2020년 대비 4,600명(22.9%)이 증가, 지난 3년간 산업단지에 약 60개사로부터 투자협약을 이루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로 고용이 증대된 것으로 추측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대상자 모집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산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4년 2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세 7만원 이하 보증금 5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33만원), 재산가액은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이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는 제외된다.

단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선 "청약통장 가입"이 조건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희망자는 28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kj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도서대출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호평

군산시가 시행 중인 이색 도서대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네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빌려주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최신 서적을 서점에서 빌려 2주간 이용한 뒤 서점으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점으로 반납된 책은 도서관이 구입해 장서로 등록한다.

시민들은 원하는 새 책을 즉석에서 빌릴 수 있어 좋고, 대출도서는 도서관이 책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점 측에서도 환영하는 새로운 공공-민간 상생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시행된 이래 이용 건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6만 8,928명, 이용도서는 7만 8,023권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동네서점으로 시

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군산시의 발달 속도도 빨라졌다. 2023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월별 예산을 균등 분배하여 12월까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또한 군산시는 1월부터 사전공모와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서점 책품(조춘동) 한 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마리서사 △양우당 △에스트 △한길문고 △리빙클럽 △북날의 신책 △조용한 흥분색 등 기존 서점 7곳을 포함하여 올해는 총 8곳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협약서점을 확보했다.

2월 19일에 개최된 협약식에서는 새로운 추가 협약서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23년도에 일궈낸 성과 공유와 앞으로의 서비스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4대 종교 문화 체험' 4월 5일부터 시작

익산시가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은 '4대 종교 문화체험' 다 이로운 익산여행'을 오는 4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원불교 총부, 내비위성당, 두동교회, 심곡사 등 4대 종교시설 해설을 들으며 순례길 걷기, 명상 등 다양한 종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4대 종교 성지순례와 함께 아가페정원, 고스락, 용안 비탈계길 등을 걸으며 1박 2일 동안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 편한 힐링 관광을 선사한다.

올해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상반기, 하반기에 두 차례 나눠 운영, 상반기는 4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수당 1박 2일 일정 2팀으로 운영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5년 유효기간 적극 홍보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다.

2024년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된 것으로 2억 5천여만 원이며 2024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3억 4천여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산시는 올해에 한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다만 앞으로 상품권은 유효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할 날짜 순서로 사용 되므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